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12월 5일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

01 주요 내용

- UN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음
 - 매년 12월 5일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이 진행
 - 한국의 경우 지난 '05년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,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규정
-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'14년 기준 22.5%로 '99년(14.0%)에 비해 증가하였으나, 지난 '05년부터 현재까지 21~22% 수준으로 정체*
 -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는 '99년에서 '05년 사이 14.0%에서 20.5%로 대폭 증가되었으나, '08년 20.0%, '11년 21.4%, '14년 22.5% 등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가 저조
 - 또한 20세 이상의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'15년 기준 5.1%(통계청, e-나라지표)로 영국(59%)에 비해 1/11 수준이며,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여성(주부), 대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, 영역도 일상생활 보조 또는 단순 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
- 자원봉사 참여자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의 한 축으로 군(軍)의 사회적 책임(MSR, Military Social Responsibility)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고자 군장병의 재능기부 활성화 노력을 시작
 - 실천적 MSR의 7대원칙** 중 '자선적 책임'을 활성화 추진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, 구체적으로 사회복지, 교육, 학술연구, 문화예술, 체육, 보건의료, 환경보전, 응급 및 재난구호 등 주요 이슈별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짐
 - * 자선적 책임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·교육·학술연구·보건의료·환경보전·응급 및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함을 뜻함
 -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자체 추정한 결과, 군장병의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52억원에서 최대 157.1억원 규모로 나타남***

*행정자치부(2014), 「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」

** 7대원칙:
 i) 당위적 책임
 ii) 윤리적 책임
 iii) 법적 책임
 iv) 존중적 책임
 v) 환경적 책임
 vi) 자선적 책임
 vii) 경제적 책임

*** 경기복지재단(2016), 「군장병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」

02 경기도 시사점

- 경기도는 31개 사군 전역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, 군장병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복지수요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중요
 - 공급처(군장병) 및 수요처(지역복지수요)에 대한 연계 및 주체들 간의 조정과 인큐베이터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,
 - 재능기부 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정과 보상시스템의 확대를 통한 군 재능기부자들의 동기부여 방안을 적극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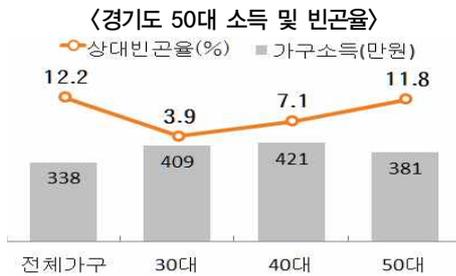
2. 위기의 50대, 현황 진단 (I)

01 주요 내용

-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는 50대*로 ‘사면초가(四面楚歌)세대’,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‘깁세대’ 등으로 불리우며 생활 전반의 곤란 상황에 직면
- 50대 경기도민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소득, 일자리, 주거, 건강 등의 생활 영역 실태**를 30대, 40대, 50대로 구분, 비교·분석하여 연속적으로 보고하고자 함
- 50대 가구의 소득은 380만 원으로 40대보다 낮고, 소득양극화도 다른 연령에 비해 더 심각하여 상대빈곤율도 11.8%로 30대에 비해 약 2배 더 높게 나타남
 - 경기도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38만원이며, 연령별로 40대가 420만6천5백원으로 가장 높고, 30대(408만8천9백원), 50대 순으로 나타남
 - 소득분포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, 50대의 경우 소득하위분위(1~3분위)에 분포 비율과 소득상위분위(9~10분위) 분포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 - 50대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중위소득 50%미만 비율인 상대빈곤율도 11.8%로 30대(3.9%)와 40대(7.1%)에 비해 높게 나타남

*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6). 『2015 보건복지정책 수요 조사 및 분석』

**경기복지재단(2016). 『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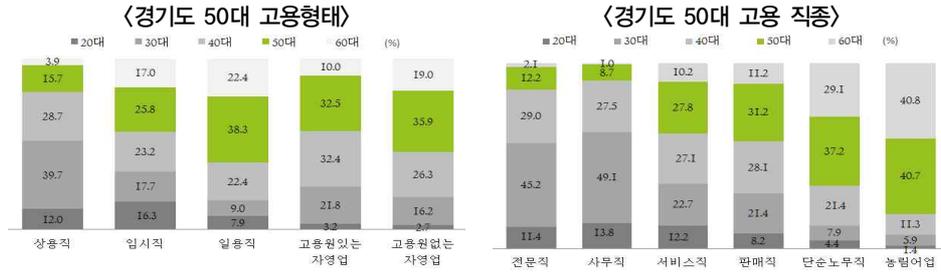


- 50대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7.4%로 30대(3.6%)보다는 2배 더 높고 60대(6.1%)보다도 높음
 - 월세, 사회보험료, 공과금, 관리비 등을 연체하거나 끼니를 거르거나, 난방을 못하거나, 병원을 가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50대는 많지만 정부의 지원이 노인이나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공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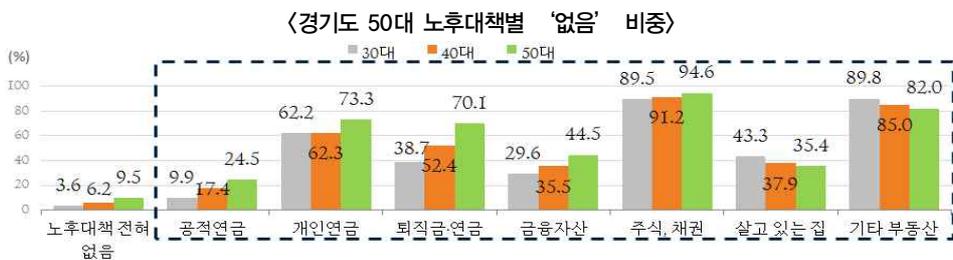


-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소득이 낮은 이유는 임시(25.8%)·일용근로자(38.3%) 비중이 높고, 단순노무나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
 - ‘퇴직’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대가 9.4%로 다른 연령에 비해 월등히 높아 조기퇴직이 소득감소 및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
 -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(39.7%)이고, 그 다음이 40대(28.7%)이며, 50대는 30대의 40%에 불과한 15.7%
 - 직종별 50대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40.7%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(37.2%), 판매직(31.2%) 순이며,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과 사무직의 50대 비중은 12.2%와 8.7%로 30대(45.2%, 49.1%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

- 근로형태는 시간제가 10.7%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오히려 46.04시간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
- 50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로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4.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



- 50대 중 가구원이 1인 즉, 1인 가구 비중은 9.9%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는데,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해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
 - 가구원수별 연령분포를 보면 1인 가구는 50대가 9.9%로 가장 높고, 40대와 30대는 각각 5.8%와 4.1%로 나타남
 - 각 연령별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, 50대의 이혼(9.7%), 사별(6.2%), 별거(1.9%) 상태의 비중이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나 50대 1인 가구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
- 50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시작되는 단계이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노후대비가 '없다' 고 응답한 비율이 9.5%에 달함
 - 노후대비가 없다고 응답한 30대는 3.6%, 40대는 6.2%로 50대에 비해 낮은 편이나 노후대비는 빠를수록 좋은 만큼 젊었을 때부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한 가지 이상의 대책 마련이 필요
- 노후대책을 연금, 금융자산, 부동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, 50대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대책에서 노후대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
 - 노후대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'없다' 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4.5%로 가장 높고, 40대도 17.4%에 달함
 - 개인연금의 경우 50대 중 73.3%가 없다고 응답하였고, 퇴직연금은 70.1%, 금융자산 44.5%, 주식이나 채권은 94.6%가 '없다' 고 응답함
 - 반면,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집 외 부동산이 '있다' 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4.6%와 18.0%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음



03 경기도 시사점

- 50대 경기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는 30대와 40대에 비해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생활영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젊은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
 - 예전에는 나이 50이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해 나이 든 부모를 다시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지만 현재의 50대는 핵가족화의 영향과 함께 자녀 세대의 취직 시기가 늦춰지면서 20~30대 자녀를 오히려 50대 부모가 역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자원봉사자 활동의 시·군별 편차 최대 23.3배 차이

-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원봉사 인프라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*
 - 인력 : 경기도는 총 279명(1위)으로 서울(130명, 2위), 경북(118명, 3위)에 비해 압도적 우위
 - 예산 : 총 예산은 203억원(1위)으로 서울(101억, 2위), 경북(76억, 3위)에 비해 압도적 우위
 - 자원봉사자 규모 : 등록 자원봉사자는 약 273.3만명으로 서울(226만명, 2위), 부산(85만명, 3위)에 비해 높은 수준
- 반면 경기도의 자원봉사 인프라 대비 효과 수준은 비효율적임**
 -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자원봉사센터 인력 130명, 연간예산 101억으로 경기도의 절반 수준인데 비해 등록 자원봉사자 규모는 두 지역이 유사한 수준
 - 경기도와 서울의 차이에는 공간 집약성과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도 작용
- 한편 도내 31개 시군별 자원봉사 현황을 보면,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최대 23.3배, 활동인원은 최대 18.7배 차이로 지역 간 편차 매우 높음
 -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수원이 28.6만 명으로 가장 높고, 연천이 1.2만 명으로 가장 낮음. 또한 연 활동인원은 성남이 49.8만 명으로 가장 높고, 가평이 2.7만 명으로 가장 낮음
 -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비율은 과천이 50%로 가장 높고, 파주가 13.8%로 가장 낮음

* 행정자치부, 「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」

**투입(인력·예산) 대비 등록 자원봉사자 수

〈표〉 도내 시군별 자원봉사자 현황

	등록인원	연인원***	인구대비 등록비율	인구대비 활동비율		등록인원	연인원	인구대비 등록비율	인구대비 활동비율
가 평	14,617	26,568	23.57	42.85	안 양	148,904	299,031	24.91	50.02
고 양	158,246	380,948	15.40	37.07	양 주	35,883	119,425	17.49	58.20
과 천	34,443	54,403	49.96	78.91	양 평	17,496	55,445	16.15	51.19
광 명	60,466	188,530	17.53	54.65	여 주	20,670	45,567	18.62	41.04
광 주	43,584	130,406	13.94	41.72	연 천	12,269	44,921	26.83	98.24
구 리	47,164	125,229	25.26	67.07	오 산	46,094	81,099	22.29	39.21
군 포	61,003	199,617	21.22	69.43	용 인	156,810	380,829	16.07	39.03
김 포	63,409	121,176	18.12	34.62	의 왕	42,647	67,696	27.04	42.92
남양주	97,642	264,629	14.94	40.50	의정부	73,193	300,431	16.87	69.23
동두천	25,069	56,150	25.59	57.31	이 천	36,661	128,131	17.89	62.52
부 천	157,104	435,278	18.50	51.27	파 주	58,535	166,211	13.83	39.26
성 남	199,222	497,464	20.51	51.21	평택	91,259	143,756	19.82	31.22
수 원	285,669	479,970	24.11	40.52	포 천	27,795	100,913	17.91	65.02
시 흥	76,697	198,503	19.26	49.84	하 남	38,244	65,992	22.94	39.58
안 산	155,973	327,678	22.35	46.95	화 성	102,997	242,566	17.27	40.66
안 성	35,235	60,915	19.55	33.80					

(단위: 명, %)
***연인원은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

* 인구대비 등록봉사자 비율 및 활동봉사자 비율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

- 경기도의 접근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정체계 마련이 필요
 - 서해안 기름유출사태, 경주 지진피해 등에 복구를 위해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경우, 접근성 문제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시민성에 무게를 두고 참여한 대표적 사례임
 - 자원봉사와 개인의 활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도 함께 고려 필요(ex. '우리집 김장 00복지관에서 함께 담궜요' 등)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사업명	주요내용
2016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 시 : 2016. 12. 12.(월) 16:00 • 장 소 : 호텔캐슬 • 참 석 : 사회보장위원, 실무회의 위원 등 150명 • 문 의 :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(☎267-9333)

03 FACT CHECK

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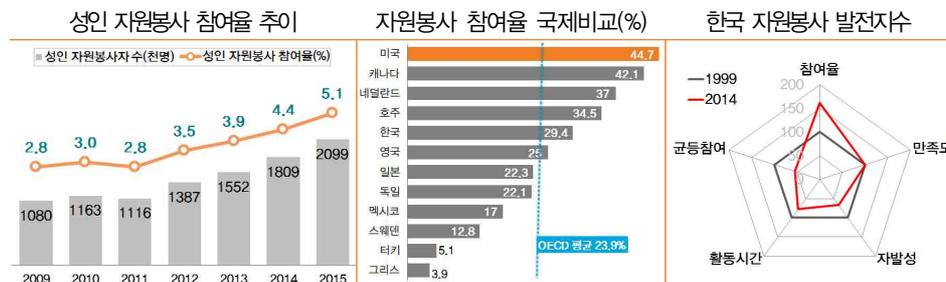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참여의 계층별 편중이 심화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참여가 활성화된 청(소)년층 자원봉사의 경우 스펙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함*
 - i) 소득계층과 봉사참여 : '05년부터 저학력·저소득층 참여율이 지속 감소, '14년의 경우 고학력층보다 17%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월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참여율은 가장 높음
 - ii) 고령사회 노인참여 : 50대 이상은 '14년부터 타 연령층에 비해 참여가 크게 감소, '액티브 에이징' 정책으로 은퇴자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
 - iii) 자원봉사 스펙쌓기와 도구주의 : '14년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에서 자원봉사 참여는 자신의 여가, 경험, 스펙을 위한 도구적 동기가 우선시 되는 경향
-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양적 측면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: 세계에서 봉사시간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나라
 - 양적관리로의 편중은 자원봉사 행위를 '봉사시간'으로 단순화시키고, 개인에게 스펙이나 경력 등 도구적 차원으로 간주하게 만들 위험
- 스펙 쌓기, 기업·공공기관의 사회봉사 필수제, 임금직 노동의 자원봉사자 대체 등 외재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가 강화될 경우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은 저하
- 실제 자원봉사자에게는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(가치인정, 자기발전·만족, 사회적 관계 등)에 대한 인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므로**,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재적 동기에 대한 인정·보상을 강화할 필요

*행정자치부 (2014), 「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」

**김승렬 외(2016), "자원봉사 활동 인정·보상 선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"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한국의 자원봉사 현황



자료: 통계청, e-나라지표(왼쪽), 행정자치부(2014),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(가운데, 오른쪽)

- 20세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'09년 2.8%(108만 명)에서 '15년 5.1%(210만 명)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나, 참여규모 자체는 적은 편임
- OECD 가입국의 자원봉사 참여율*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(23.9%)보다 높으나, 미국(44.7%)에 비해 절반 수준
 - 자원봉사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북미·북유럽은 높고, 아시아는 평균수준, 남미·서유럽은 참여율이 낮은 가운데, 스웨덴(12.8%)은 북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율이 낮음
- 우리나라 자원봉사 발전지수는 참여율 161점, 만족도 100점, 자발성 67점, 균등참여 55점, 활동시간 78점으로, 자발성·균등참여·활동시간 수준이 저하('14년 기준)**

*전 연령, '12년 기준

**'99년을 100점 준으로 점수 산출

05 해외동향

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

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

- 영국의 자선구호재단(CAF, Charities Aid Foundaion)에서는 매년 세계 나눔 지수(World Giving Index)를 발표
 - 세계 나눔 지수는 140개국을 대상으로 현금 기부, 자원봉사, 타인 돕기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3가지 항목의 평균값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음
 -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 1위는 미얀마가 차지 : 미얀마의 이러한 높은 기부지수는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는 불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*
 - 미국(2위)의 경우 낯선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응답자의 73%, 자선단체에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%, 자원봉사에 나섰다는 응답자 비율은 43%로 나타남
 - 한국은 75위, 일본 114위의 낮은 순위에 머물렀으며 중국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(140위)

〈세계 나눔 지수 순위〉

국가	전체 순위	타인 돕기(%)	현금 기부(%)	자원봉사(%)
미얀마	1	63	91	55
미국	2	73	63	46
호주	3	68	73	40
뉴질랜드	4	61	71	44
캐나다	6	65	65	38
영국	8	61	69	33
한국	75	46	35	18
일본	114	25	23	23
중국	140	24	6	4

자료 : Charities Aid Foundation(2016), CAF World Giving Index 2016

- 세계 나눔 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미국, 영국 등은 국가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음
 - 나눔 지수에는 민간 자원봉사의 발달, 종교적 특성, 사회적 계약 등 국가별 특수성과 함께 민·관 협력을 통한 예산지원, 프로그램 개발, 봉사자의 배치 등이 영향
 -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, 나눔 지수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해 봉사자에 대한 다차원적 인정보상체계(금전적 보상, 심리사회적 보상 등)를 확립
- 미국 국가봉사단의 AmeriCorps 프로그램
 - 미국 연방정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예산지원, 자원봉사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네 종류의 국가봉사단(AmeriCorps, Senior Corps 등)을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인(CNCS)에서 관리하여 국가봉사단 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
 - CNCS에서 관리하는 봉사자는 6천3만 명 정도(미국민의 약 25%)로, 79억 시간을 봉사 활동에 투자('15년 기준)**
 -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활동한 영역은 조리 및 급식 관련 봉사활동이었으며 모금활동, 일반노무, 학습, 멘토링 등의 순으로 시간을 투자함
 - 이밖에 스포츠팀 코치, 카운슬링, 음악공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음
 - 청년층(18~24세)을 대상으로 하는 AmeriCorps는 NCCC(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), VISTA(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), State and National 프로그램으로 구분

*사찰에 기부, 수도승에 시주하는 소승불교의 관행이 반영

**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인(CNCS) 웹사이트에서 인용

〈AmeriCorps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〉

프로그램	봉사자	주요 프로그램	봉사자 혜택
NCCC	18~24세 (풀타임, 팀별 합숙)	위기청소년지원,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, 환경보호, 위기관리 대책 수립 등	생활비, 의료보험, 학생대출자금 상환유예, 교육장학금, 자녀보육 등
VISTA	18세 이상 (연 8천명 이상)	문맹퇴치, 노숙자 대안 전환 주택, 저소득층 대상 보건 서비스, 재해 희생자를 위한 쉼터 마련 등	생활비, 건강보험, 자녀보육, 교육장학금 등
State and National	17세 이상	교육, 치안, 건강, 환경 등	생활비, 건강보험, 자녀보육, 교육장학금 등 (최대 12개월 활동 가능)

자료 : AmeriCorps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인용 및 재구성

- 영국의 새천년봉사단(MV, Millenium Volunteers)*
 - 영국은 구빈법의 발달 이후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었으며, 국가개입 축소 정책과 더불어 민·관의 사회적 협약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이 확립
 -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'99년 16~2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예산지원을 시작
 - MV는 4개 지역정부(스코틀랜드, 웨일즈, 북아일랜드, 잉글랜드)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나, 아래 9가지 기본원칙은 동일하게 유지
 - ①지속적 헌신에 대한 약속, ②지역사회 이익기반 프로그램 운영, ③자발적 참여, ④대상포괄성, ⑤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, ⑥봉사활동의 다양성, ⑦기관 간 파트너십 기반, ⑧양질의 봉사활동 제공, ⑨상(awards)을 통한 인정체계 확립
 - 봉사활동의 영역은 병원에서 봉사, 지역사회 정원구축, 자원보존사업,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교사, 체육활동의 리더, 아동을 위한 여행도우미, 경찰·군대의 간부후보생 참여 등
 - 봉사자에 대한 혜택은 50~100시간 봉사자의 경우 '인증서'를 수여하고, 200시간 이상의 최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총리명의로 최우수상이 수여
 - 수상경력은 이력서 상에 기재되어 졸업 후 취직 또는 취학에 있어 영국 내 기업과 대학교(원)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
- 자원봉사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
 - AmeriCorps 참가 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인(CNCS)의 종단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**
 - '99년~'00년에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'00~'01년에 봉사활동을 종료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시민 참여(civic engagement), 취업, 교육 및 삶의 만족도 등을 측정
 - CNCS는 AmeriCorps 자원봉사자가 대조군에 비해 시민 참여와 취업에서 긍정적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보이며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- 영국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천년봉사단(MV)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자 개인에게는 개인적 발전 및 기술의 습득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***
 - 봉사자의 84%는 MV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였고, 78%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였으며 타인과의 교류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응답
 - 또한 봉사자의 80%는 타인의 필요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MV 봉사활동이 봉사자 개인의 사회심리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이밖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과 기쁨, 새로운 경험, 직업탐색의 기회,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 등 자원봉사자들이 얻는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혜택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음

*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0), 「민간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」

**CNCS(2008), 「Still Serving: Measuring the Eight-Year Impact of AmeriCorps and Alumni」

***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(2002), 「UK-Wide Evaluation of the Millennium Volunteers Programme」